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제5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11월 4일 상하이시서 개막

- 제5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11월 4일 상하이시에서 개막하여 10일까지 개최될 예정
- 올해 수입박람회에는 145개 국가, 지역 및 국제조직이 참가했고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84개 기업이 참가하여 참가기업 수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고 연속 참가율이 90%에 근접
- 박람회 전시장은 △식품·농산품 △자동차 △기술·장비 △소비재 △의료기기·의약보건 △서비스무역 △종합전시 등 6개 전시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글로벌 3대 패션 업체, 10대 의료기기 업체, 10대 의약품 업체, 10대 완성차 업체 모두 전시회에 참가했고 40개의 일대일로 주변국과 13개의 RCEP 회원국 기업도 전시회에 참가하였음
- 지난 1회부터 4회까지 박람회 참가기업은 총 1,500여건의 신제품, 신기술,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고 참가기업들의 의향 거래규모는 누적 2,700억 달러에 달했음

자료원 : 중국시장감독관리신문

<https://baijiahao.baidu.com/s?id=1748740738715644861&wfr=spider&for=pc>

2 中, 1~10월 대외무역규모 7.7%(달러화 기준) 증가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한 5조 2,600억 달러이며, 이 중 수출은 11.1% 증가한 2조 9,900억 달러, 수입은 3.5% 증가한 2조 2,700억 달러, 무역흑자는 43.8% 확대된 7,277억 달러임
- 10월 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한 5,116억 달러이며, 이 중 수출은 0.3% 감소한 2,984억 달러, 수입은 0.7% 감소한 2,132억 달러, 무역흑자는 0.9% 확대된 852억 달러로 집계됨

자료원 : 베이징상보

<https://www.bbtnews.com.cn/2022/1107/457039.shtml>

3 中, 2021년 대외직접투자액 16.3% 증가한 1,788억 달러

- 지난 11월 7일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21년 중국 대외직접투자 (ODI) 통계 보고서'를 공동 발표하였음
-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대외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788억 달러로 10년 연속 글로벌 3위를 기록했고 2021년 말 기준 누적 대외직접투자액은 2조 7,900억 달러로 5년 연속 글로벌 3위를 차지함
- 일대일로 주변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일대일로 주변국에 대한 투자액은 24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2021년 말까지 누적 투자액은 2,138억 달러로 집계됨. 2021년 말까지 일대일로 주변국에 설립한 기업은 총 1만 1,000개사로 전체 해외 기업수의 1/4에 달했음

자료원 : 베이징상보

<https://www.bbtnews.com.cn/2022/1107/457047.shtml>

<https://www.bbtnews.com.cn/2022/1107/457048.shtml>

4 中, 2026년 가상현실 산업규모 3,500억 위안(한화 약 68조원) 예상

-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교육부, 문화관광부, 국가광전총국, 국가스포츠총국 등과 공동으로 '가상현실 및 업종 응용 융합 발전 행동계획(2022~2026년)'을 발표하였음
- 행동계획에서는 2026년까지 가상현실 산업규모(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플 등을 포함)를 3,500억 위안(약 68조원) 이상으로 성장시키고 혁신 능력과 업계 영향력을 갖춘 유망업체 100개를 육성하며, 10개의 가상현실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음
- 2022년 상반기 VR 헤드 디스플레이 글로벌 출하량은 684만 대로 2022년 전년 출하량은 1,3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IDC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VR 출하량은 전년 대비 100% 증가한 143만 대이며, 2022년에는 300만 대, 2025년에는 1,000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

- 중국 공업정보화부 전자정보사 관계자는 가상현실(증강현실, 혼합현실 등 포함)은 차세대 정보기술의 발전방향으로 디지털 경제의 유망 분야로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증권일보망

http://www.jjckb.cn/2022-11/02/c_1310672436.htm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2-11-05/A1667600028830.html>

5 中, 실리콘 웨이퍼 가격 하락세...실리콘 원료 가격도 하락 예상

- 올해 실리콘 원료 가격이 톤당 30만 위안(한화 약 5,834만 원)으로 상승한 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여 '중국 녹색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쓰촨성 러산시(乐山)에서 통웨이구편(通威股份), 세신커지(协鑫科技) 등 기업들이 실리콘 원료 공장건설을 추진하고 생산능력 확대로 공급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 10월 31일 오후 기준 실리콘 웨이퍼 업체인 TCL중환(TCL中环)은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가격을 인하했으며, P형 150 μ m두께를 예로 들면 210mm 실리콘 웨이퍼 가격은 10.06위안(약 1,956원)에서 9.73위안(약 1,892원), 182mm 실리콘 웨이퍼 가격은 7.62위안(약 1,482원)에서 7.38위안(약 1,435원)으로 인하함
- TCL중환 관계자는 실리콘 원료 공급이 3분기보다 원활하고 공장 가공률이 제고되어 가격을 인하했다고 전했으며, 업계에서는 TCL중환의 가격 조정으로 실리콘 원료 가격도 지난 2년간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점차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함
- 한편 태양광 발전 분야의 실리콘 수요가 예상을 추월하여 올해 실리콘 원료 가격은 지속 상승세를 보였고 선도기업들의 수익성도 대폭 제고됨. 통웨이구편(通威股份)의 1~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265.5% 증가한 217억 위안(약 4조 2,204억 원), 다취안에너지(大全能源)의 1~3분기 순이익은 237.25 증가한 151억 위안(약 2조 9,368억 원)을 기록했음

자료원 : 중국증권보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2-11-07/A1667773521650.html>

6 금년 1~9월 베이징시에 616개 브랜드 첫 점포 오픈

■ 11월 2일 베이징시 상무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9월 616개 브랜드의 첫 점포가 베이징 시에서 오픈되었으며 베이징시의 '첫 매장 경제(首店经济)'가 중국 내 1위로 나타남. 이 중 중국 본토 브랜드가 534개로 전체의 87%, 해외 브랜드는 82개로 전체의 13%를 차지했음

*첫 매장 경제(首店经济) : 지역단위 내에서 특정 브랜드의 첫 매장을 개점하여 브랜드 가치와 지역자원을 최적으로 결합하여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하는 중국의 신형 경제 전략. 첫 매장(首店)이란 업계 내 특정 브랜드의 최초 오픈매장 뿐만 아니라 기존 매장과 다른 혁신적인 형태의 팝업스토어, 체험매장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 업종별로는 요식업, 소매업 종사업체가 각각 357개, 161개로 전체의 84%를 차지했고, 구역별로는 차오양구(朝阳区)에 335개 점포가 오픈되어 전체의 54%에 달했음. 상권별로 보면 CBD, 산리툰(三里屯), 샹징(双井), 차오칭(朝青), 왕징(望京), 왕푸징(王府井) 등 6대 상권에 오픈한 점포가 274개로 전체의 40%를 차지함
- 기업들의 입주 사례를 보면 차오양다웨칭(朝阳大悦城)에 한국 브랜드 NERDY의 첫 점포가 오픈한 첫달에 매출 120만 위안(약 2억 3,438만 원)을 달성했으며, 화웨이는 올해 12월 스마트생활플래그 숍인 화시(华熙)Live·우커송(五棵松) 점포(3층 단독 건물로 면적은 1,545 평방미터, 3C·차량·스마트홈 제품 등 판매)를 오픈할 예정임
- 베이징시 상무국은 올해 3월 '첫 점포 오픈 지원정책' 3.0버전을 발표한 후 올해 하반기에는 '패션류(时尚类) 소매기업의 베이징시 발전 가속화 지도의견(2022~2025년)' 발표를 통해 2025년까지 2,000개 이상의 패션류 브랜드의 첫 점포 오픈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음



▲ NERDY
차오양다웨칭(朝阳大悦城) 중국 첫매장



▲ 화웨이
화시(华熙)Live 단독건물 매장 조감도

자료원 : 베이징상보망

<https://www.bbtnews.com.cn/2022/1103/456715.shtml>

7 中, 올해 광군절 상가와 소비자 참여도 모두 하락세

- 컨설팅회사 베인앤컴퍼니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올해 광군절(11.11) 소비자의 참여도가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 중 34%의 소비자는 올해 지출을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음
- 인터뷰에 참가한 소비자(90허우)는 지난해 광군절 구입한 일용품이 너무 많아 아직까지 다 사용하지 못하여 올해는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刚需消费)할 예정이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충동소비를 하지 말자고 상호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음
- 한편 다수의 상가들도 광군제 마케팅의 매출실적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행사에 참가하지 않으면 향후 플랫폼 내 점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참가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음. 광군절 외에도 징둥, 핀뉘뉘, 더우인, 콰이서우 등 다수의 플랫폼들이 각종 전자상거래 명절과 판촉행사를 개최하면서 판촉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상점 운영자들도 이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함

자료원 : 시대주간

<https://36kr.com/p/1990930942159107>

8 中, 4분기 황린 가격 변동속 하락세 예상

- 올해 중국내 황린 현물 가격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으로 1~9월 평균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48.1% 상승한 3만 3,682위안(약 655만 원)을 기록함. 연간 최고가격은 5월 중순 톤당 3만 9000위안(약 758만 원), 올 들어 연중 최저 가격은 8월 초 2만 5,000위안(약 486만 원)을 기록한 바 있음
- 현재 황린시장은 공급량이 대체로 충분하고 다운스트림 기업들의 수요가 부진하여 황린 가격이 지속 하락한 후 비교적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며, 단기간 뚜렷한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황린 생산량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85만 톤으로 4분기에는 황린 가격이 지속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예측. 11월 들어 황린 생산업체는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수요가 부진하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편, 향후 윈난성 지역의 전력 사용 제한이 더욱 강화되고 갈수기 전력가격도 상승하여 생산원가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가격 등락이 지속될 전망이다

자료원 : 룡중자문 1988

<https://baijiahao.baidu.com/s?id=1748163459122347689&wfr=spider&for=pc>

9 미국 반도체 팹리스 업체 마벨(Marvell), 중국 본토 R&D센터 일부 철수

- 최근 미국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 마벨(Marvell)의 관계자는 글로벌 R&D 투자 조정의 일환으로 중국에서의 일부 부서 철수계획을 로이터 통신에 밝혔음. 상하이 R&D센터의 경우 SPG부서, ASIC부서, IT부서 등에서 엔지니어가 모두 철수할 예정임
- 마벨의 중국 내 직원수는 한때 1,000명에 육박하고 상하이 소재 국제 R&D 센터는 과거 800여명의 R&D 인력을 보유한 미국 본사 및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대형 R&D 센터였음. 마벨의 대규모 감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5년 업무 개편으로 모바일 사업부를 철수하면서 이미 수백 명을 감원한 이력이 있음
- 마벨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3G·4G 시대에 주요 스마트폰용 칩 공급업체로 활약했지만 수많은 중국의 스마트폰 칩 제조업체들이 중저가 시장에 뛰어들자 2015년 모바일 반도체 사업을 대폭 축소하였음. 최근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침체로 메모리 사업부문 실적 부진하여 감원을 단행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음

자료원 : 평항왕(凤凰网)

<https://i.ifeng.com/c/8KSFZXZMtQe8l>